

〈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 - 위원단 선발 2차 서류 평가 〉

이름	이에림		
1.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5줄 내외 : 진부한 소개 내용은 삼가주세요.)			
<p>저는 이번 14회 정기회의에 간사를 지원한 이에림입니다. 저를 지칭하는 말을 굉장히 많은데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대 의원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회 학습부 부장, 방송부원, 팀장 등 많은 장소에서 많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다채로운 매력과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여유롭게 풀어주는 저의 모습,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p>			
2.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 내에서의 역할(위원장, 간사, 서기) 중 1순위와 2순위를 밝히고, 왜 본인이 선발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을 말하시오. (10줄 내외) * 처음 신청서에 선택하셨던 내용이 달라지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최종 결정해주세요.			
<p>저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를 1지망으로, 서기를 2지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18회 임시회의와 현재 8대의원 활동 모두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방송부나 도서부 등 학교에서 봉사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의 경우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학기 초에 담당선생님의 실수로 도서부 친구의 이름이 누락되어 봉사시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부 활동으로 1년 동안 도서부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름이 누락된 친구는 3년째 도서부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먼저 선생님께 그 친구가 빠지는 것보다 제가 빠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저는 도서부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고, 지금도 봉사시간 없이 도서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간사와 서기는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원회의 의원님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누구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p>			
<p>Q. 혹시 신청서에 지원한 위원회와 지금 현재 선택하신 위원회가 달라지신건가요? A. 아니요</p>			
3. 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3줄 내외 : 공지사항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기재)			
<p>위원단은 단순히 위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이든, 여러 번 참가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쉽게, 함께 입법청원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위원단은 위원회의 단합과 위원회 내의 정보전달을 정확히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4.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세요. (10줄 내외)			
<p>저는 현재 성서중학교에서 학생회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회장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습실 등을 제가 소속된 학습부 내에서 자습실을 운영하고 있고, 책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 등 학습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자습실을 운영하는 동안 밥을 못 먹기도 했고 선생님들과의 마찰 역시 있었으나 학생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기에 선생님들을 이해시키고, 끝까지 설득하여 자습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줄곧 반장을 맡으면서 단순히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앞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p>			

라, 우리 반 모두가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물과 숙제 등을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단순히 반장이기에, 학생회이기에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 서는 모습, 그리고 힘든 일 역시 감수 할 수 있는 모습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5.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활동명 기재)
또는 이번 청소년 국회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체명 기재)

대청의를 처음 접한 것은 비평단 활동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평소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된 논제를 세우거나 글쓰는 것을 좋아하여 비평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18회 임시회의&청소년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일반청소년의원원으로 참여하여 고등교육법개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져 8대의원에 보궐로 들어가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 저희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 프로그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단체의 캠프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5~7줄로 요약해주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청소년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 상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스펙을 쌓거나 생기부 등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 자치적으로 온전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현재 지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3:1이 넘는데요, 본인이 반드시 뽑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0줄 내외 : 구체적인 활동 포부를 밝혀주세요.)

저는 우선 그 누구보다 캠프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각오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청의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처음 참가하기 전 어차피 청소년들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캠프에 참여한 이후 함께 활동하는 의위님들의 열정을 보고 저 역시 쉽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 캠프기간 3일 동안 잠을 2시간도 채 못자며 발표를 준비하고, 입법청원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밤을 새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열정적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시에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의원원으로 참여하여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할 자신이 있지만, 위원단으로써 참여하였을 때 저의 열정과 끼를 가장 많이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사라는 직책을 맡기에 아직 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제가 간사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8. 캠프 기간에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위원장/간사/서기에 선발된다면 사전 교육 (오프라인 혹은 전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0. 신청하신 이번 캠프는 “입법청원” 하며 법안을 만드는 캠프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위원단에 배정받으신다면, 해당 위원회에 어떤 법안을 상정하시겠습니까? (10줄 내외 :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발의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p>제가 개정하고 싶은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사의 채용과 기간제 교사에 관련된 조항이 나와있는데요, 저는 기간제교사의 채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p> <p>제가 이법안을 상정하고 싶은 이유는 우선 기간제 교사가 1년이하의 단위로 바뀔 경우 학생들의 불안정과 제대로 된 입시준비의 어려움, 교사-학생간의 관계가 미흡해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의 저희 학급의 경우 1학기가 끝난 후 담임교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 역시 너무나 좋은 분이였지만 학생들이 익숙치 않아 결국 좋지 않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사의 채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p>
<p>11. 위원단을 맡지 못하더라도, 이번 14회 정기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실 건가요?</p> <p>서류평가나 전화면접에서 탈락한다면 “일반 청소년 의원” 으로 법안을 만들게 되십니다.</p> <p>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예약금이 지불된 상태이므로 신청서 뒤 동의 서명하셨던 안내 중 <기간별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p>
네. 위원단이 아닌 일반 의원으로 참석하게 되더라도 14회 정기회의에 성실히 참여할 것입니다.
<p>12. 위원단으로 선발되시고 캠프에서 정상 활동을 하게 되시면 캠페인 봉사시간 2시간 외에 위원단 4시간 봉사시간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저희 단체는 봉사시간을 발행하지만 생활기록부 입력가능여부는 재학중이신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p> <p>추후 확인하지 않으시거나 뒤늦게 봉사시간 입력문제 때문에 캠프 취소는 불가능한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p>
<p>▶ 봉사 일시 : 8월 2일 화요일 13시 ~ 17시</p> <p>봉사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p> <p>봉사 내용 : 청소년 권익신장과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 캠페인 참여</p> <p>발행 기관 : 대한민국청소년의회</p> <p>담당자 : 윤지희 팀장</p> <p>연락처 : 1544-8438</p>
<p>● 저희 단체 프로그램은 단순히 봉사시간이나 생활기록부 스펙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점 동의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p>
동의합니다. 대청의에 비평단으로 참여하고 또 8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고 있고 이번 정기회의 역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의장단, 위원단 신청이 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면접만으로 선발한다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진심으로 이번 캠프에서 간사와 서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다시 받아, 지원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지원자 모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선발 결과를 공지할 때, 합격자의 서류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7월 8일 자정부터 7월 15일 자정까지 서류를 작성하신 지원자는 “2차 서류평가 - 홍길동” 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yassembly2003@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는 모든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종료되고 방학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다고 판단합니다. 성실하게 위 문항에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정당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yassembly2003@gmail.com 으로 서류마감 이전에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16~17일 동안 서류채점이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별도로 “전화면접”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7월 18일 오후에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문자를 발송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전화면접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제 12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에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